

[제2018-80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 9.25(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ARI Project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 개최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

Stories of Migration: African & Korean Diaspora Dances of Memories, Resistance and Rebirth

Promoted by Ko's Korean Traditional Dance Institute
고수희 무용 연구소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Stories of Migration:
African & Korean Diaspora Dances of Memories, Resistance and
Rebirth)
- ▶ 일 시 : 2018.10.5(금)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 최 : LA한국문화원, 고수희무용연구소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불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열네번째 무대로 고수희무용연구소 (원장 고수희)를 선정하여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 (Stories of Migration: African & Korean Diaspora Dances of Memories, Resistance and Rebirth) 공연을 10.5(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한국외교부에 의하면 세계 한인해외동포(코리안디아스포라) 인구는 현재 7,4백만명이 약 170여개 국가에 거주하며 그중 2,4백만명이 북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인구는 총 1억4천만명이다. 그중 브라질 5천5백만명, 북미 4천6백만명 등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섬 및 유럽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남긴 예술, 문학 그리고 문화적 자산은 재즈, 블루스, 소울, 가스펠, 컨트리, 콰바, 살사, 샴바, 머랭게, 힙합, 비트박스, 스포큰워드, 시, 폴리리듬, 스윙, 트랩, 디스코 이외 수백가지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러장르의 음악, 춤, 리듬은 아프리카가 원조라는 의미이고 친근감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다.

다양한 문화를 자랑하는 LA시에서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통무용으로 함께 공유하여, 커뮤니티간의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라는 우리의 여정속에 과거를 포용, 현재를 치유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속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높여 서로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I. 기원 (Origin) II. 움직임, 건너다 (Movement, Crossing)

III. 치유 (Healing) IV. 꿈 (Dreams)

주제로 나누어 한-아프리카 전통춤을 선보이게 된다.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여정속에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춤과 음악은 어떠한 역사의 역경속에서도 살아 남았고 그 씨앗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의 뜻 깊은 문화 교류를 통하여 한-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역사를 공유하여 서로의 문화적 사회적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고수희무용단 (고수희무용연구소)의 삼북춤, 장고춤, 한량무, 축원무, 타고무와 김진희 (어울림경기민요)의 창부타령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류공연을 위해 초청된 아프리카팀은, 할리웃 영화, 연극, 학계 등에서 아프리카춤의 대가로 알려진 엔징가 카마라 (Nzingha Camara)의 Le Ballet de

Kouman Kele 무용단과 LA 아프리카 커뮤니티에서 여성 아프리카타악의 길을 열어준 Rene Fisher-Mims (Mama Nay Nay)의 타악팀 SHINE Muwasi가 함께하여 감동을 더하여 줄 것이다.

공연을 기획한 고수희 원장은 "이 공연을 통해 한-아프리카 커뮤니티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인타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한국과 아프리카 두 커뮤니티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한 무대에서 관람하고,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색다른 아프리카 장르의 공연을 감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Sue Hee Ko Director, Ko's Korean Traditional Dance Institute (고수희무용소)	Katherine Ko Dance Teacher, Ko's Korean Traditional Dance Institute (고수희무용소)	Nzingha Camara Founder & Artistic Director, Le Ballet de Kouman Kele (르발레 데 쿠만 켈레)	Rene Fisher-Mims Founder & Artistic Director, SHINE Muwasi (샤인무와시)	Jinhee Kim Director, Oulim Korean Gyeonggi Folk Song (어울림 경기민요)	
					
Grace Lee	Kyung Hee Valdez	Kelly Chang	Nulee Chung	Noah Min	Dana Min
					
O Mi Cha, Gemma Hong, Pok Sun Cho	SHINE Muwasi	Le Ballet Kouman Kele	Rose Lee, Elaine Lee, Ruby Lee		

여정: 한-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무용전 (프로그램)

I. ORIGIN [기원]

Sambuk Chum - 삼복춤

Libation - 현주

II. MOVEMENT, CROSSING [움직임. 건너다]

Jango Chum - 장고춤

Hallyangmu - 한량무

The Middle Passage / Queen Nzinga - 중간항로/엔징가 여왕

III. HEALING [치유]

Changbu Taryeong - 창부타령

Chukwonmu - 축원무

Lamba - 람바

IV. DREAMS [꿈]

Tagomu - 타고무

Finale

* 프로그램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